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8

올해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
시민행복 공기업 도약해야

광주도시철도공사

“봄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이호준) 마라톤 팀이 힐찬 질주로 봄 마중에 나선다.

마라톤 마니아 30여명 정예 출전

겨우내 연마한 실력 과시 별리

기록 보다는 달리기 자체를 즐겨야

정했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광주지하철. 이번 마라톤을 통해, 지난 10년의 성과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고의 시민행복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시민에게 알리겠다는 의욕이 돋아났다.

제1회 대회부터 졸곧 참여해 온 나석주

전략기획처장은 “광주지하철이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보내주신 시민들의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며 “조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의지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철도도는 그간 선진화된 경영과 차원 높은 안전서비스로 광주시의 주요 간선 대중 교통수단이자 일등 공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지하철 역사를 시민 생활 문화공간으로 환원하는 문화지하철 사업은 동종업계에서 신선한 충격을 던지며 광주지하철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는 데



광주도시철도공사 마라톤 마니아들이 이호준 사장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새해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공사의 올해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안정된 경영 역량을 총집결, 경쟁력있는 사업 활로를 적극 모색, 새로운 공기업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당찬 포부 아래 임직원 전원이 열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일터 혁신 우수기업’,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 받을 만큼 가족 친화 경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이호준 사장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참가자들의 사기도 최고조에 달해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마라톤 마니아, 기술관 제부 최미용 과장은 “해마다 3·1절 마라톤으로 봄을 시작하며 새해 계획을 다시 다잡는 계기로 삼고 있다”면서 “기록에 연연하기보다는 달리는 것 자체를 즐기며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땀 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 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 희현이와 함께 달리는 홍보교육팀 김경재 과장은 “아들이 네 살되던 해부터 매년 3·1절 마라톤에 함께 참여했는데 이전 아빠보다 더 잘 달리 따라잡기 힘들 정도”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가족과 함께 가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KIA 앤서니가 20일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열린 라쿠텐과의 연습경기에서 8회 마무리로 등판해 공을 던지고 있다.

KIA 마무리 앤서니 ‘낙점’

라쿠텐과 연습경기서 합격점 ... 차일목 투런포 불구 또 3-5 패배

오키나와 = 김여울 기자

앤서니가 KIA 불펜 퍼즐을 맞춘다. KIA 선동열 감독은 20일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열린 라쿠텐과의 연습경기에서 앤서니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다.

양현종을 선발로 전진배치했던 선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은 마무리였다. 마무리가 확정돼야 선발진 구성을 끝내고 KIA의 아킬레스 건으로 불리는 불펜의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진우를 유력한 마무리 후보로 꼽았던 선 감독은 앤서니에게 눈길을 주고 있다. 김진우가 팔꿈치 부상에서 회복해 서서히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다 앤서니가 지난 시즌 선발과 불펜에서 전천후로 활약했던 만큼 노선을 바꿨다.

빠른 템포의 투구가 특징인 앤서니는 견제능력과 수비력을 갖추고 있고, 지난 시즌

을 보내며 경험까지 쌓은 만큼 마무리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다.

앤서니도 “마무리 경험은 없지만 팀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무리를 맡게 된다면 마운드에서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도 강렬한 색으로 염색할 생각이다”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마운드의 윤곽이 잡히면서 앤서니의 마무리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앤서니는 지난 17일 주니치와의 연습경기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마운드에 올랐다. 9회 등판한 앤서니는 149km의 직구와 커브, 체인 지업 등의 변화구로 삼자범포로 깔끔하게 이닝을 막았다.

20일에도 최향남-임준섭-진해수에 이어 3-5로 뒤지던 8회 등판해 소방수 임무를 수행했다. 직구 위주의 피칭을 한 앤서니는 선두타자 코사이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중견수 플라이로 투 아웃을 잡아냈다.

킨지에게 내야안타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유격수 고영우의 수비가 아쉬웠던 타구, 보크로 주자를 2루까지 내보낸 앤서니는 삼진으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앤서니의 마무리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KIA는 3-5로 패하면서 연패 탈출에 실패했다.

선발로 출격한 최향남이 2회 킨지와 니시다에게 2루타 2개를 허용하는 등 먼저 2점을 내줬고, 3회에는 3번 코사에게 우측 담장 넘어가는 홈런을 허용하면서 4실점을 기록했다.

KIA는 3회 최희섭의 적시타로 1점을 뽑은 뒤 6회 대타로 들어선 차일목의 투런포로 3점을 만들어냈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3-5패를 기록했다.

5연패에 빠진 KIA는 21일 소사를 출격시켜 라쿠텐과의 두 번째 연습경기를 벌인다. /wool@kwangju.co.kr

KIA 캠프 말말말

차일목 “이상하게 공이 멀리나가”

▲살아있네=해설위원으로 변신한 박재홍, 김중국 3루 코치가 경기 도중 파울 타구를 재빠르게 피하자, 두 사람은 광주일고 동계 사이다.

▲선배님 강강하셨습니다=이병호가 최향남에게, 라쿠텐과의 연습경기 선발이었던 최향남이 경기 전 여기저기 왔다갔다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먹어야 살이 빠지지=차일목, 살을 빼야한다던 나지환이 후식으로 핫도그까지 챙겨 먹자, 김원섭의 식탁을 가리키면서.

▲공이 왜 이렇게 멀리 가? = 6회 2점 홈런을 치고 들어온 차일목, 이상하게 공이 멀리 가더니.

▲감독님께서 더 잘 던지시면서=조용준 해설위원, 선동열 감독이 인사차 덕아웃을 찾은 조용준에게 슬라이더 비법 좀 가르쳐 주고 가라고 하자, 조용준은 현역시절 특급 슬라이더를 던져 ‘조라이더’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장갑 좀 풀어봐 =경기 전 장비를 챙기던 김진우, 좋은 장갑이 없다면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회 대거 4점 집중타

대표팀 6-2 NC 대패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대표팀이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타격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잠재워 보였다.

류종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일 대만 도류시 도류구장에서 열린 제9구단 NC 다이노스와의 두 번째 평가전에서 9안타로 6점을 뽑는 집중력으로 6-2로 승리했다.

NC는 특급인 윤형배를 선발로 내세웠으나 대표팀은 2회에 무서운 응집력을 발휘했다. 김태균과 김현수의 연속 안타에 이어 최정의 볼넷으로 만든 무사 만루 찬스에서 손아섭이 윤형배의 변화구를 힘껏 잡아당겨 우익수 방면 2타점 2루타를 때려냈다.

이후 대표팀은 진갑용의 좌중간 희생플라이, 손시현의 중전 안타로 2회에만 대거 4점을 뽑아냈다. /연합뉴스

다카하시 전 코치·박재홍·조용준 연습장 방문

20일 KIA와 일본 라쿠텐과의 연습경기에서 열린 킨 구장.

흐린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는 쌀쌀했지만 반가운 얼굴들로 경기장 분위기는 따뜻했다.

유니폼이 아닌 깔끔한 사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해설가들. 다카하시 전 KIA 수비코치와 방망이와 글러브 대신 마이크를 들게 된 박재홍과 조용준이 그 주인공들이다.

다카하시 코치는 2011년 수비코치로 KIA와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2011시즌이 끝나고 사령탑이 바뀌었고 다카하시 코치도 KIA와 짧은 인연을 뒤로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해설가로 복귀한 다카하시 코치는 일본 동북방송에서 라쿠텐과 요코하마를 담당하고 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KIA에 진하게

게 남아있다. 특히 ‘꼬꼬마 키스톤’ 김선빈과 안치홍은 특별한 제자로 기억하고 있다.

다카하시 코치는 “홈런 맞는 거야 수비 코치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외야에는 베테랑 선수들이 많았던 만큼 내야를 맡은 김선빈, 안치홍에게 특히 애정이 간다”며 “지난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움직임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다”고 이들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날 덕아웃에는 또 다른 신인 해설가인 박재홍과 조용준도 등장해 선수들과 회포를 나눴다. 현역시절 투·타에서 최고의 실력을 과시했던 이들은 올 시즌부터 해설가로 활약한다.

이들은 꼼꼼하게 선수단 움직임을 체크하고 경기를 살펴보는 등 초보 해설가로서 바쁜 하루를 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선동열 감독과 방송 해설가로 변신한 박재홍(왼쪽)·조용준이 덕아웃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525-4835 | 송정역 941-3278

영주 부석사 선비촌 기차여행
출발일 3월 22일(금)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
여행비 68,000원
여행코스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
특전 영주시에서 인삼비누 세트 증정(15,000원 상당)

진해군항제 벚꽃축제 기차여행
출발일 4월 4일(목) / 4월 9일(화) 광주역 출발(당일)
여행비 37,000원
여행코스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항산공원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